**우주선 변기 막힘 사건**

**1부: 우주선의 비상벨**

고요한 우주 한가운데, 인류의 새로운 희망을 싣고 항해하는 **'오디세이 호'**는 황량한 붉은 행성 '케플러-186f'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3년간의 지루한 항해 끝에 마침내 탐사 임무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 선장인 이안은 최종 점검 목록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벅찬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 순간, 적막을 깨고 우주선 전체에 **요란한 비상벨**이 울려 퍼졌다.

"띠이이이-! 띠이이이-!"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다. 이 긴 항해 동안 수십 번도 더 겪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비상벨과 함께 모니터에 나타난 경고 메시지를 본 이안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버렸다.

**경고: 생활 시스템 오류.   
폐기물 처리 시스템 과부하. 즉시 조치 요망.**

"선장님,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압력 밸브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통신 담당 승무원 마크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문제의 원인은 예상 밖의 곳에서 터졌다. 바로 **화장실**. 3년간의 항해 동안 승무원들의 배설물을 처리해왔던 고효율 압축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변기 막힘 하나가 우주선 전체의 생명 유지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우주선 내부 공기 정화는 물론, 식수 재활용까지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탐사고 뭐고, **모두가 질식하거나 독성 물질에 중독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인류의 희망이 걸린 탐사 임무는 사소해 보이는 변기 막힘 하나 때문에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모두가 침묵에 휩싸였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로움과 싸우며 견뎌왔던 고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승무원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2부: 지구식 해결책의 한계**

이안 선장은 회의실에 모든 승무원을 소집했다. "원인은 변기 필터에 **미세 섬유 뭉치**가 끼어 압축 펌프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특수 필터에 너무 단단하게 엉겨 붙어 있다는 겁니다."

승무원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그 미세 섬유 뭉치는 3년간 승무원들이 무심코 버린 물티슈, 칫솔모, 심지어는 이발할 때 나온 머리카락 등이 엉겨 붙어 만들어진, 일종의 **'우주 쓰레기 거대 덩어리'**였다. 우주선의 생명 유지 장치와 직결된 문제였기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탐사는커녕, 귀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기술 담당 승무원인 첸이 무언가 반짝이는 물건을 들고 나타났다. "선장님! 저희 보급 상자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에서 가져온 거대한 빨간색 뚫어뻥**이었다. 첸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뚫어뻥을 흔들었다. "지구에서는 이걸로 웬만한 변기는 다 뚫었습니다! 무중력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죠!"

첸의 자신감에 모두가 잠시 희망을 품었다. 뚫어뻥을 든 채 화장실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중세 시대의 용사가 괴물을 처치하러 가는 모습과도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무중력**이었다.

첸이 뚫어뻥을 변기에 대고 온 힘을 다해 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압력은커녕 뚫어뻥을 밀어내는 힘의 반작용으로 첸의 몸이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간 것이다. "으아악!" 비명을 지르며 우주선 벽에 부딪힌 첸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생물학자 박 박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첸, 여기는 지구 중력이 없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잊었나?"

이안 선장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승무원들은 지구에서 쓰던 온갖 기상천외한 도구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긴급 수리용 공기압 축소기를 가져와 뚫어뻥에 연결해 보기도 하고, 강력한 음파 발생기로 막힌 부분을 진동시켜 보려고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거대한 소음과 함께 미세 먼지만 잔뜩 발생시켜 우주선 내부 공기를 더욱 탁하게 만들 뿐이었다.

결국 이안은 무력하게 외쳤다. "모두 중지! 이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승무원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 그들의 눈앞에는 케플러-186f의 붉은 표면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인류의 희망이 걸린 역사적인 순간을 코앞에 두고, 그들은 변기 하나를 뚫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다.**

**3부: 탐사 일정 취소 위기**

마침내 선장은 모두를 다시 회의실로 소집했다. 그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구 관제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했고, 그들의 답변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안에게로 향했다. 이안은 심호흡을 한 후,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탐사 임무는 **전면 취소**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우주선 전체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디세이 호는 즉시 귀환 궤도로 진입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거대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3년이라는 긴 세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미지의 우주를 탐험하겠다는 꿈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던 모두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케플러-186f의 탐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다. 그들은 인류의 다음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지구의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노력이 **‘변기 막힘’**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생물학자 박 박사는 넋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케플러-186f의 생명체 흔적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인물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행성 샘플 분석기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플라스틱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는 탐사선의 카메라에 잡힌 붉은 행성의 사진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기술 담당 첸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이런 바보 같은... 겨우 변기 때문에..." 그는 무중력 뚫어뻥 대소동의 실패가 떠올랐는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안 선장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고통을 느꼈다. 그 자신 역시 탐사에 대한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코앞에 두고 좌절해야 하는 상황에 분노와 허탈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때, 막내 승무원인 엘라가 눈물을 닦으며 이안에게 물었다. "선장님...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3년을... 이렇게 허무하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녀의 간절한 외침에 모두가 다시 이안을 바라보았다. 이안은 그들의 간절한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결심한 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수동으로 분해해 막힌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도로 위험한 작업입니다. 내부의 독성 가스와 압력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는 자원하십시오. 이 작업에 성공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4부: 뜻밖의 영웅**

이안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우주 변기 청소부'**가 되려 할까?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는 바로 탐사선의 가장 나이 많은 승무원이자, 식물학자인 **김 교수**였다.

그는 평소 과묵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3년간 우주선 내의 작은 식물원인 **'바이오 돔'**을 가꾸는 일에만 전념해왔다. 식물학이라는 탐사와는 거리가 먼 그의 갑작스러운 자원 봉사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교수님, 위험합니다. 독성 가스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젊은이, 내가 평생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며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가장 복잡한 문제일수록 해답은 가장 단순한 곳에 있다'**는 것이네."

김 교수는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고, 모두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우주선 시스템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제 분야에서 찾은 작은 지식을 활용할 뿐입니다."

김 교수는 모두를 이끌고 바이오 돔으로 향했다. 그곳은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자라고 있었고, 은은한 흙냄새와 풀잎 냄새가 가득했다. 김 교수는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화분 하나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알로에베라'**처럼 생긴,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하는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이 식물은 내가 케플러-186f의 토양 샘플을 분석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케플러 알로에'**라는 식물일세. 이 식물의 점액질은 일반적인 점액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섬유질을 강력하게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네."

김 교수는 특수 용기에 케플러 알로에의 점액질을 모으기 시작했다. 투명하고 끈적한 그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젤리처럼 용기 안에서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 액체를 작은 노즐이 달린 특수 분사기에 담았다. 그리고 그 분사기를 들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막힌 부분으로 향했다.

다른 승무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김 교수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불신이 교차했다. 그들은 과연 이 **'알로에 젤리'**가 거대한 우주선 전체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김 교수는 침착하게 분사기의 노즐을 막힌 부분에 밀어 넣고, 서서히 점액질을 분사했다. 끈적한 점액은 순식간에 섬유 뭉치에 스며들었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섬유 뭉치를 녹이기 시작했다. 미세한 기포가 보글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섬유 뭉치의 부피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10분, 20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압력 밸브가 **'텅'** 하는 소리를 내며 뚫렸다. 3년간 쌓였던 폐기물 뭉치가 녹아내리면서, 시스템 전체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성공입니다! 시스템 정상 작동!" 첸의 외침에 회의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이안 선장은 김 교수를 감동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경의를 표했다. "교수님, 교수님이 바로 이 오디세이 호의 영웅입니다!"

김 교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별말씀을. 그냥 내가 아는 걸 했을 뿐이야. 그리고… **탐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잖나.**"

**5부: 우주선의 새로운 규칙**

그의 말에 모두는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변기 막힘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위기를 극복한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탐사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교수의 기발한 해결책 덕분에 오디세이 호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완벽하게 복구되었고, 승무원들은 탐사 임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임무가 사소한 일상 문제 때문에 무너질 뻔했기 때문이다.

이안 선장은 탐사 재개 전, 모든 승무원을 모아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이제부터 오디세이 호는 지구의 화장실 예절을 잠시 잊어야 합니다. 변기 막힘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우주선 화장실 사용 설명서'**였다. 기존의 딱딱하고 전문적인 내용 대신, 아이들이 그린 듯한 귀여운 그림과 함께 재미있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 **"화장실에선 '케플러 알로에'를 사랑해주세요!"**
  + 변기 사용 후, 반드시 '케플러 알로에' 점액질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세요. 이 영롱한 초록빛 젤리가 여러분의 모든 흔적을 깨끗이 녹여줄 거예요!
  + 이 점액질은 김 교수님이 직접 개발한 귀한 용액이니, 낭비하면 안 돼요!
* **"이발소는 '미세 중력 청소기'와 함께!"**
  + 머리카락은 절대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이발소 사용 후에는 반드시 특수 제작된 '미세 중력 청소기'로 머리카락 한 올까지 깨끗하게 빨아들여야 해요.
  + 떠다니는 머리카락을 잡으러 다니는 건 정말 힘든 일이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공기 필터를 지켜주세요!
* **"물티슈는 '우주 재활용함'에!"**
  + 물티슈, 치실, 솜뭉치... 지구에선 버려도 괜찮았지만, 오디세이 호에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우주 재활용함'에 넣어주세요.
  + 이 재활용함에 모인 것들은 3D 프린터의 원료로 재탄생할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쓰레기가 새로운 우주 장비가 될 수도 있답니다!

이안 선장은 마지막으로 모두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3년간의 항해 동안 **'지구인'**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우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사소한 규칙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존을 결정할 것입니다. 탐사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우주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했다. 화장실 변기를 사용한 후에는 서로 '케플러 알로에'를 잘 썼는지 확인했고, 이발을 할 때면 '미세 중력 청소기'로 머리카락을 쫓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주 재활용함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모여들었고, 첸은 그 재활용품으로 승무원들의 식사를 위한 작은 받침대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전의 오디세이 호가 그저 고도로 정교한 기계였다면, 이제는 모두의 일상과 노력이 담긴, 살아 숨 쉬는 유기체로 변모한 것이다. 변기 막힘이라는 사소한 사건은 그들에게 '우주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우주선은 그저 거대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자, 미래를 위한 희망의 터전이라는 것을.

그렇게 오디세이 호는 붉은 행성 케플러-186f에 착륙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우주선 내부에는 평온함과 함께, 끈끈한 동료애와 작은 규칙들이 만들어낸 훈훈한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인류의 미래를 향한 위대한 첫 발걸음은, 그렇게 사소하지만 위대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